

千 “생즉사 사즉생 각오 국민의당 살릴 것”

천정배 당 대표 출마선언
정동영과 현재 2파전
10일 후보 등록 마감
안철수 출마 최대 변수로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가 1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1일 공식적으로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가 대표 경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민의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열렸던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출마 선언식을 하고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 국민의당 위기극복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다. 또 “생즉사 사즉생(生即死 死即生),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저는 국민의당을 살리기 위해 죽을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천 전 대표는 이어 “목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인제 화수분’ 국민의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목표가 확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검찰이 이른바 ‘제보 조작’ 사태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의당이 대국민 사과문을 채택하면서, 국민의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대국면으로 돌입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인사는 천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 둘 뿐이다. 후보 등록일이 오는 10일인만큼 아직 시간은 있지만 누가 더 나설지는 미지수다. 당의 최대 주주인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안 전 대표가 출마를 결심한다면 경쟁 구도가 크게 출렁이고 일부 후보의 경우에는 아예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안 전 대표의 거취가 대표 경선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날 안 전 대표가 직접 사과문 발표장에 나오면서, 당내에서는 안 전 대표의 향후 행보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됐다.

당 안팎에서는 안 전 대표의 출마 여

부를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다. 안 전 대표와 가까운 원내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출마 요구가 강하다. 당 대주주로서 직접 당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안 전 대표의 출마가 당은 물론 본인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 측은 속고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처럼 안 전 대표 행보가 불확실해 보이자 다른 당권 주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일단,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천 전 대표와 정 의원 등은 안 전 대표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전대를 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안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판도가 크게 뒤바뀔 수밖에 없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다른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문병호 전 최고위원,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안 전 대표 출마 여부에 더욱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 측은 “제 3당이라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안 전 대표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문 전 최고위원의 경우 안 전 대표가 나온다면 자신은 안 전 대표를 지지하고 당권 도전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점을 주변에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안철수 나설 때 아니다”

“전대 나오지 않을 것...대북정책, 제재·대화 병행 바람직”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일 안철수 전 대표의 차기 전대 출마설과 관련해 “저는 안 전 대표가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며 일선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정치는 생물이니까 늘 변하는 것이고, 또 출마 요구가 강해지니까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모른다)”면서도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SBS라디오 ‘시사정망’에 출연해서도 “안 전 대표가 출마하

지 않을 것”이라며 “통화 내용을 생각해봐도 안 전 대표가 출마한다는 뜻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의 ‘정계은퇴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열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며 “안 전 대표는 당의 중요한 자산이고 미래가 있는 분이다.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양한 목소리를 잘 경청해 좋은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속적으로 국민의당을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추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당 비난 전대 대표 같다. 당당하

일 이 그것뿐인 것 같다”며 “야당을 잘 설득해 국정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싸움질만 걸어오니 청와대도 부담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오락가락한 것은 좋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강력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옳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제안한 대로 핵을 동결하고 대화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간은 북한의 편이며 6자 핵실험까지 이어지고 나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당 “혁신으로 당 정비”

국민의당 광주시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임특혜 의혹 제보조작에 대해 사과하고 당 체제 정비를 선언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1일 논평을 통해 “제보조작사건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변화와 혁신으로 당 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정치적·도덕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질박한 심정으로 개혁과 혁신을 통해 당 체제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광주시당은 또 “당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

홍준표 또舌禍

“본처라고 우겨도 첩은 첩” SNS서 바른정당 폄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일 바른정당을 겨냥, “아무리 본처라고 우겨 본들 첩은 첩일 뿐”이라며 막말에 가까운 폄하 발언을 해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휴가를 보내고 있는 홍 대표는 이날 한 언론사 주필의 칼럼에 대한 화답 형식의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은 좌파 진영도 분열돼 있고 우파 진영도 분열돼 있다”며 “정당의 통합은 인위적 정계개편보다 국민이 선거로 심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파 진영 통합을 자연스레 해줄 것으로 굳게 믿는다”며 “첩이 아무리 본처라고 우겨 본들 첩은 첩일 뿐”이라고 썼다.

홍 대표는 그간 ‘기생정당’, ‘배신자’, ‘패션좌파’ 등 표현을 써가며 바른정당을 비난해 왔다.

이에 바른정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준표 대표는 하루도 막말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입만 열면 시공창 내세워 진동한다”며 “오늘은 ‘첩’ 운 운하며 봉건시대를 연상케 하는 여성비하 발언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또 “홍준표 대표의 이번 ‘첩’ 발언이 제 귀엔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에 참패할까 두렵다’는 고백으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 대표의 표현은) 여성을 비하하는 어휘로 결코 써서는 안 될 말”이라며 “어떻게 아직도 억압의 시대, 봉건시대의 사상으로 세상과 사물을 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개헌특위, 지방분권 확대 공감대

17일 집중 토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개헌안의 핵심 이슈인 지방분권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지방분권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남아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일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 를 열어 지역별별론을 추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헌법 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헌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민중당 백재현 의원은 “시대정신이 분권이라고 의미를 둔다면 지방분권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지방정부·연방정부·광역정부 등 어느 쪽으로 논의를 좁혀

갈지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헌법개정의 핵심은 지방분권이다.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인데,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세금 징수권이나 입법권을 출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도 중앙정부 권한을 강하게 해서 자원을 내려보내는 것”이라고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개헌특위는 오는 17일 제7차 1소위원회를 열어 자문위원회로부터 정점사항을 정리한 보고를 받고 지방분권에 관한 집중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헌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헌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데에도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호남 제1야당 만들어달라”

대표 취임 후 첫 광주 방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을 비롯해 다수의 후보를 출마시키겠다”며 적극적인 호남 민심 공략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이 독식해 온 호남에서 ‘진짜 야당’을 겨루는 경쟁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호남에는 제1야당이 없다. 그만한 지지율을 확보한

정당도 없고 제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한 정당도 없다”며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진검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정의당을 호남정치의 제1야당으로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등 다수의 후보를 출마시켜 당당히 검증받고 선명해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세월호 현장인 묵포신항을 찾아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 규명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치평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7,6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지	일반물건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감정가 270,000,000 최저가 216,000,000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계획관리지역 큰도로정 해안가 토지 1200평 감정가 103,000,000 최저가 103,000,000	▶담양군 담양읍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서구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상업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 현재 상업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능
	▶광산구 비아동 아파트자리 토지 약 2000평 매매가 평당 280만원
	▶북구 신안동 주상복합상가 전남대점문근인 (1층, 2칸) 건물 32평 매매가 3억5천 (용자 2억5천, 보증금5천, 월143만원)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물관리인근 토지 359평 평당 40만원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층일반주거지역 무동산자리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대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상무지구 중심상권 커피전문점 6층건물 1층 50평 5천만원 월350백 시설비 9천 조정가능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완료 내나무 생태공원조성사업 2540평 5억 5천만원
	▶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평 4억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